

家電 3 社에 대한 '83, '84 財務諸表分析*

南 相 午
(서울大 經營大 副教授)

I. 序 論

1980년 초의 침체에서 벗어나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된 가격으로 好況 국면을 맞이한 電子·電氣業界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經濟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輸出增大에 대해 대외적으로 경계현상이 나타나 선진국의 輸入規制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電子·電氣業界의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칼라텔레비전 덤핑판정 등으로 어려운 곤란을 겪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협소한 國內需要에 대하여 각 家電業體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 대하여 각 家電業體에서는 나름대로의 經營目標하에 全社의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 研究에서는 우리 나라 家電業體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금성사, 대우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家電 3社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家電 3社의 財務諸表를 분석하였다.

證券去來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1984년도의 事業報告書만을 研究範圍로 삼았으며, 1984년도와 1983년도의 比較財務諸表에 대한 百分率分析과 比率分析을 통하여 가전 3사의 財務構造와 收益性, 配當 등을 比較·分析하였다.

이들 家電 3社가 각 그룹의 선두회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심층있는 財務諸表分析이 會社經營에 一助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II. 財務諸表分析

1. 概 要

1) 業界의 一般現況

금성사는 1952년에 회사가 설립되었고, 주요 사업은 전자·전기기기,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이다. 금성사는 1984년도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속에서도 매출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海外現地法人의 확충을 통하여 무역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물론 반도체, 컴퓨터등 고도의 技術集約製品이 매출의 증대를 주도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적인 技術企業으로 도약하였다.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해외시장에서 날로 강화되는 保護貿易主義에 대응하기 위하여 新製品개발, 消費者 保護체제 확립, 海外市場의 多邊化, 品質水準의 高度化, 生産能力의 확대 등을 꾀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16비트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티 GMC-5010'을 개발하였다. 앞으로 막대한 시설투자를 통하여 尖端技術製品의 생산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연구개발의 투자확대로 新製品 개발과 技術革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技術人力의 양성을 위한 교육저변을 확대하는 등 中長期 發展基盤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1972년에 회사가 설립되었고, 주요사업은 일반용·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기기의 제조 및 가공업이다. 1984년도에는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總賣出額 2,836 억원을 기록하였고, 생산 및 영업전반에 걸쳐 완벽한 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내 영업부문

* 本 事例는 本 大學 博士課程 崔雄龍氏와 共同作成한 것임.

에서는 꾸준히 유통망을 확장하여 '83년말 330개에 불과한 대리점을 560개로 늘렸으며, 그밖에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컴퓨터전문점, 주방기전문점, 냉난방기전문점, 비디오테이프전문점 등 1,254개의 유통망을 확보하였다. 輸出에 있어 1984년 초 미국의 앤티덤핑 관정으로 칼라 TV의 수출에 심한 타격을 입었으나, 輸出先의 多邊化를 통하여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난 \$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輸出主宗商品인 VTR을 칠레에 수출한 데 이어 그밖의 국가와도 활발한 수출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국내의외의 어려움을 극복·발전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研究投資 및 開發에 힘을 쏟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技術水準이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 新製品의 開發에 따른 새로운 수요창출 및 다양한 제품으로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1969년에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전자·전기기계 기구 및 그 부품, 통신기계 기구 등의 제작 및 판매업이다. 수원공장 이외에 미국(1983년), 서독, 포르투갈(1982년)에 現地法人을 설립하였고, 1984년에는 미국 뉴저지주 루스베리에 칼라 TV와 전자렌즈 생산을 위한 현지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생산을 개시하였다. 1984년에는 賣出 1조원의 목표를 돌파하였으며, 앞으로의 주요 經營目標은 현재의 家電 위주에서 産業電子로 기업변신을 꾀하며, 또한 각국에서의 앤티덤핑의 제소에 대비하여 原價節減을 통한 價格差異 축소, 海外現地工場의 확충 등으로 企業의 世界化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製品의 尖端化, 生産能力의 極大化, 事業部制의 실시강화, 事務自動化, 마케팅革新, 새로운 社風 조성, 部品の 國産化率 提高 등을 통하여 産業電子化를 꾀하고 있으며, 流通構造의 건전화와 消費者保護의 정착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 電子·電氣製品 生産 및 販賣

금성사, 삼성전자의 최근 4사업년도 동안과 대우전자의 최근 2사업년도 동안의 電子·電氣製品 生産 및 販賣現況은 <表 1>과 같다. 전자·전기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타 컴퓨터, 금전등록기 등은 제외되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기타 제품의 販賣高는 2.1%이다. <表 1>에

서 生産能力은 금성사와 삼성전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근무와 2시간 초과근무,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와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製品의 販賣經路는 內需의 경우 代理店을 경유한 消費者販賣와 直接販賣經路를, 輸出의 경우에는 바이어를 통한 消費者販賣와 現地法人의 受注를 통하여 販賣業者(dealer)의 消費者販賣, 綜合商社를 통한 販賣業者의 消費者販賣 등의 經路를 취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의 生産能力, 生産實績, 輸出 및 內需 등을 가전 3사별, 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전기제품 전체의 生産能力과 生産實績은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이며, 단지 電氣製品의 경우에만 삼성전자의 生産能力과 生産實績이 금성사의 경우보다 앞서고 있다. 販賣實績을 살펴보면 輸出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의 順이며, 內需의 경우에는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이다. 電子製品에 대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은 電氣製品의 경우보다 훨씬 앞서며, 輸出의 경우에도 電子製品이 電氣製品에 비하여 4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성사의 電子製品에 대한 輸出은 금성사 수출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內需의 경우에는 전자제품과 전기제품의 차이가 거의 없다. 특기할 것은 電氣製品의 輸出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7.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輸出은 삼성전자가, 內需는 금성사가 각각 우위를 점하고 있다.

生産能力과 生産實績을 비교하여 볼 때 금성사, 삼성전자는 前年度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대우전자는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기할 것은 삼성전자의 生産實績 對 生産能力比率이 101.3%로서 대우전자의 36.5%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表 2> 참조). 輸出比率($\frac{\text{수출액}}{\text{매출액}} \times 100$)은 전체적으로 1983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1983년의 42.2%에서 電氣製品의 輸出增加率 둔화로 인하여 1984년에는 매출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生産能力增加率($\frac{\text{당년도 생산능력}}{\text{전년도 생산능력}} \times 100$)은 금성사가 제일 높으며, 특히 電子製品

〈表 1〉 電子·電氣製品 生産 및 販賣

(단위 : 백만원)

항 목	회 사	금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전 자 제 품	생산능력	339,763	320,513	431,689	872,370	249,172	399,600	210,092	234,019	363,820	523,695	1,044,681	1,795,665				
	생산실적	274,826	271,220	402,640	700,844	128,086	136,045	199,209	205,280	286,555	522,644	817,281	1,359,533				
	수출	170,425	142,892	263,201	525,330	48,191	68,100	162,129	142,033	287,627	557,338	599,019	1,150,768				
	내수	132,311	155,606	255,254	398,548	53,317	81,089	93,104	135,019	186,324	314,698	494,895	794,335				
				71.3%		56.6%				63.4%							
전 기 제 품	생산능력	162,437	268,728	310,962	324,956	83,160	120,740	119,668	128,897	231,957	371,468	626,079	817,164				
	생산실적	107,843	136,603	210,020	302,447	49,880	54,120	66,010	109,235	180,281	384,027	440,181	740,594				
	수출	16,652	16,345	30,931	25,165	23,193	33,993	31,762	59,271	90,824	206,479	144,948	265,637				
	내수	94,133	139,435	198,926	346,609	44,344	80,386	51,463	68,436	124,483	273,132	367,753	700,127				
				28.7%		43.4%				34.5%							
합 계	생산능력	502,200	589,241	742,651	1,197,326	332,332	520,340	329,760	362,916	595,777	895,163	1,670,760	2,612,829				
	생산실적	382,669	407,823	612,660	1,003,291	177,966	190,165	265,219	314,515	466,836	906,671	1,257,462	2,100,127				
	수출	187,077	159,237	294,132	550,495	71,384	102,093	193,891	201,304	378,451	763,817	743,967	1,416,405				
	내수	226,444	295,041	454,180	745,157	97,661	161,475	144,567	203,455	310,807	587,830	862,648	1,494,462				

〈表 2〉 電子·電氣製品 生産 및 販賣比率

회 사	금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생산실적/생산능력	82.5	83.8	53.6	36.5	78.4	101.3	75.3	80.4
전 자 제 품	93.3	80.3	51.4	34.0	78.8	99.8	78.2	75.7
전 기 제 품	67.5	93.1	60.0	44.8	77.7	103.4	70.3	90.6
수 출 비 율	39.3	42.5	42.2	38.7	54.9	56.5	46.3	48.7
전 자 제 품	50.8	56.9	47.5	45.6	60.7	63.9	54.8	59.2
전 기 제 품	13.5	6.8	34.3	29.7	42.2	27.3	28.3	27.5
생산능력 증가율		61.2		56.6		50.3		56.4
전 자 제 품		102.1		60.4		43.9		71.9
전 기 제 품		4.5		45.2		60.1		30.5
생산실적 증가율		63.8		6.9		94.2		67.0
전 자 제 품		74.1		6.2		82.4		66.3
전 기 제 품		44.0		8.5		113.0		68.2

에 대한 生産能力增加率は 102.1%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生産實績增加率(당년도 생산실적/전년도 생산실적×100)은 삼성전자가 94.2%로 가장 높고 대우전자가 6.9%로 가장 낮게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百分率分析

1) 貸借對照表에 대한 百分率分析

가전 3사의 期末 財務狀態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84년도와 1983년도의 比較貸借對照表을 〈表 3〉과 같이 작성하였다. 또한 각 가전업체의 총자산금액 또는 부채 및 자본합계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울러 정리하였다.

1984년도의 總資產金額을 비교하여 볼 때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경우 718,000백만원, 607,737백만원, 496,150백만원으로서 이들 가전 3사의 총자산금액은 1,821,887백만원이다.

총자산 가운데 각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當座資產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有形固定資產, 在庫資產의 順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전 3사 모두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금성사나 대우전자에 비하여 當座資產比率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43.5%), 在庫資產比率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13.4%).

부채 및 자본합계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 및 자본 중에

서 流動負債가 차지하는 비율이 단연 제일 높으며, 다음으로 固定負債의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전자의 경우 流動負債가 차지하는 비율이 80.9%로 아주 높게 나타나 次期 이후의 流動性(liquidity)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보다 훨씬 많음으로써 次期 이후 財務構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資金計劃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短期性負債를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資本金이 차지하는 비율은 8.1~11.1%로 나타났다. 전기 이전의 영업에 대하여 배당 후 당기에 이월된 금액, 즉 修正後 前期移越剩餘金은 거의 없어, 당기의 配當可能利益은 거의 當期純利益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當期純利益은 절대액으로나, 부채 및 자본합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보나 삼성전자가 단연 높게 나타났다. 즉, 삼성전자의 當期純利益은 25,126백만원으로 금성사의 10,556백만원보다 두 배 이상이며, 대우전자의 2,246백만원보다 11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前年度의 純利益보다 當期の 純利益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競爭의 심화, 輸出與件의 악화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고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損益計算書에 대한 百分率分析

가전 3사의 1984년도와 1983년도의 經營成果

〈表 3〉 貸借對照表에 대한 百分率分析

(단위 : 백만원, %)

항 목	회 사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261,518	188,012	39.7	39.7	175,926	99,163	42.3	143,209	34.7	430,384
채고자산	135,056	87,674	18.5	18.5	121,225	43,111	18.4	62,006	15.0	192,791
기타 유동자산	22,865	10,140	2.1	2.1	21,716	10,457	4.5	12,591	3.1	33,188
합 계	419,438	285,826	60.3	60.3	318,867	152,731	65.2	217,806	52.8	656,363
투자외 기타 자산	48,117	38,327	8.1	8.1	34,150	11,870	5.1	46,780	11.3	96,977
유형 고정자산	243,226	149,445	31.5	31.5	130,604	64,626	27.6	132,276	32.1	346,347
무형 고정자산	810	478	0.1	0.1	2,874	3,729	1.6	1,012	0.2	5,219
이연자산	6,409	0.9			9,655	1,356	0.6	14,644	3.5	16,000
합 계	718,000	474,076	100.0	100.0	496,150	234,312	100.0	412,518	100.0	1,120,906
부채 및 자본										
유동부채	399,105	238,329	50.3	50.3	401,249	156,594	66.8	220,562	53.5	615,485
고정부채	173,823	126,821	26.8	26.8	51,286	36,334	15.5	96,997	23.5	260,152
자본금	80,000	52,000	11.0	11.0	40,000	40,000	17.1	45,000	10.9	137,000
자본잉여금	23,509	23,509	5.0	5.0						48,107
기타 이익잉여금	29,500	6,300	1.3	1.3	1,193	1,149	0.5	5,914	1.4	52,318
수정 후 전기 이익잉여금	1,507	507	0.1	0.1	176	△4,327	△1.8	△683	△0.4	1,000
당기 순이익	10,556	26,610	5.6	5.6	2,246	4,562	1.9	21,261	5.2	52,433
합 계	718,000	474,076	100.0	100.0	496,150	234,312	100.0	412,518	100.0	1,120,906

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比較損益計算書는 <表 4>와 같다. <표 4>에는 국내매출과 수출을 포함한 總賣出額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 손익항목 및 이익 등의 비율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먼저 總賣出額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351,647백만원으로 금성사의 1,295,652백만원에 비하여 근소하게 많으며, 이들 두 가전업체에 비하여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283,552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매출액 중에서 國內賣出은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이며, 輸出은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의 順으로 나타났다. 즉, 삼성전자는 국내매출(43.5%) 보다는 수출(56.5%)에, 금성사는 수출(42.5%) 보다는 국내매출(57.5%)에 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983년도와 1984년도의 賣出을 비교하여 보면, 삼성전자 91.2%, 금성사 73.1%, 대우전자 65.5%의 賣出額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 증가 가운데 삼성전자와 금성사의 輸出增加率은 國內賣出增加率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國內賣出增加率이 輸出增加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賣出原價는 총매출액의 75.6~85.3%이며, 이에 따라 賣出總利益率은 14.7~24.4%로 나타났다. 매출과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원가의 비교에 의하여 산출되는 賣出總利益은 대우전자가 타업체에 비하여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는 가장 낮으나, 상대적 비율인 賣出總利益率은 24.4%로 가장 높다.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는 총매출액의 9.6~18.4%이며, 대우전자가 가장 높은 販管費比率을 보임으로써 營業利益率은 삼성전자의 경우보다 낮아지고 있다.

營業外收益이나 營業外費用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대우전자가 가장 높음으로써 經營利益率은 삼성전자에 비하여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한 회계기간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當期純利益은 금액의 절대액이나 매출과의 상대적 비율 측면에서나 삼성전자가 단연 제일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우전자의 賣出總利益率이 타업체

에 비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營業利益率, 經常利益率, 法人稅差減前純利益率, 當期純利益率 등은 모두 삼성전자의 경우보다 낮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우전자의 販賣費와 一般管理費가 타업체에 비하여 너무 많으며, 또한 1983년도와 대비하여 보더라도 1983년도의 14.3%에 비하여 1984년도에는 18.4%로 상당히 높아진 데에 주된 원인이 있다. 대우전자의 國內賣出增加率이 81.0%로써 협소한 국내가전시장에 대한 시장개척을 위하여 판매비가 급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販管費의 질감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1984년도와 1983년도의 利益率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우전자의 賣出總利益率이 1983년도의 23.6%에서 1984년도의 24.4%로 증가한 이외에는 1984년도의 기타 모든 이익율이 1983년도의 경우보다 낮다. 즉, 대우전자의 영업이익율, 경상이익율, 당기순이익율과 금성사, 삼성전자의 모든 이익율이 1983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3년도에 비하여 1984년도의 賣出原價가 많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된다.

3) 財務狀態變動表에 대한 百分率分析

가전 3사의 資金, 즉 純運轉資本의 源泉과 運用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84년도와 1983년도의 比較財務狀態變動表를 작성하면 <表 5>와 같다. <表 5>에서는 純運轉資本의 收入이 있는 財務的 去來의 합계와 純運轉資本의 支出이 있는 財務的 去來의 합계를 중심으로 하여 각 財務資源의 源泉項目과 運用項目의 相對的 比率를 구하였다.

우리 나라 「企業會計基準」에서는 總財務的 資本개념에 의한 財務狀態變動表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순운전자본의 수입이 없는 재무적 거래는 순운전자본의 지출이 없는 재무적 거래와 동일하며, 따라서 순운전자본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백분율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각 기업의 1984년도 平均 純運轉資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평균 순운전자본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하였다.

평균순운전자본 =

〈表 4〉 損益計算書에 대한 百分率分析

(단위: 백만원, %)

항 목	금		성		사		대		우		전		자		합		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1984년	1983년	
매 출	745,157	57.5	454,180	60.7	180,343	63.6	99,652	58.2	587,830	43.5	320,227	45.3	1,513,330	51.6	874,059	53.7	
수 출	550,495	42.5	294,132	39.3	103,209	36.4	71,629	41.8	763,817	56.5	386,784	54.7	1,417,521	48.4	752,545	46.3	
합 계	1,295,652	100.0	748,312	100.0	283,552	100.0	171,281	100.0	1,351,647	100.0	707,011	100.0	2,930,851	100.0	1,626,604	100.0	
매출원가																	
기초재고	24,126		14,947		8,735		1,033		15,998		16,466		48,859		32,446		
당기제조·매입원가	1,147,523		597,381		230,809		132,511		1,136,410		536,531		2,514,742		1,266,423		
기말재고	(66,905)		(24,126)		(25,130)		(2,706)		(27,920)		(15,998)		(119,955)		(42,830)		
합 계	1,104,744	85.3	588,202	78.6	214,414	75.6	130,838	76.4	1,124,488	83.2	536,999	76.0	2,443,646	83.4	1,256,039	77.2	
매출총이익	190,908	14.7	160,109	21.4	69,138	24.4	40,443	23.6	227,159	16.8	170,012	24.0	487,205	16.6	370,564	22.8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24,438)	(9.6)	(69,446)	(9.3)	(52,280)	(18.4)	(24,492)	(14.3)	(140,767)	(10.4)	(83,438)	(11.8)	(317,485)	(10.8)	(177,376)	(10.9)	
영업이익	66,470	5.1	90,663	12.1	16,858	5.9	15,951	9.3	86,392	6.4	86,574	12.2	169,720	5.8	193,188	11.9	
영업외수익	10,671	0.8	6,758	0.9	15,549	5.5	3,454	2.0	17,729	1.3	8,386	1.2	43,949	1.5	18,598	1.1	
영업외비용	(61,835)	(4.8)	(57,205)	(7.6)	(28,157)	(9.9)	(11,703)	(6.8)	(65,690)	(4.9)	(66,723)	(9.4)	(155,682)	(5.3)	(135,631)	(8.3)	
경상이익	15,306	1.2	40,216	5.4	4,250	1.5	7,702	4.5	38,431	2.8	28,237	4.0	57,987	2.0	76,155	4.7	
특별손익	(417)		(1,038)	(0.1)	(434)	(0.2)	(59)		(5,091)	(0.4)	(408)	(0.1)	(5,942)	(0.2)	(1,505)	(0.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889	1.1	39,178	5.2	3,816	1.3	7,643	4.5	33,340	2.5	27,829	3.9	52,045	1.8	74,650	4.6	
법인세등	(4,333)	(0.3)	(12,567)	(1.7)	(1,570)	(0.6)	(3,081)	(1.8)	(8,214)	(0.6)	(6,568)	(0.9)	(14,117)	(0.5)	(22,216)	(1.4)	
당기순이익	10,556	0.8	26,611	3.6	2,246	0.8	4,562	2.7	25,126	1.9	21,261	3.0	37,928	1.3	52,434	3.2	

$$\left\{ \begin{array}{l} \text{(기초유동자산+기말유동자산)} \\ - \text{(기초유동부채+기말유동부채)} \end{array} \right\} \div 2$$

금성사의 평균 순운전자본은 33,915백만원이며, 대우전자는 △43,122.5백만원, 삼성전자는 △16,765.5백만원으로, 오직 금성사만이 流動資産이 流動負債보다 많다. 즉, 삼성전자나 대우전자의 경우에 流動負債가 流動資産보다 많다. 이는 1년 이내에 도래할 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모두 상환할 수 없으며, 따라서 次期에 지급부족상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非流動資産의 처분이나 社債의 발행을 통하여 流動性を 확보하여야 하거나, 설비투자를 억제함으로써 流動性 喪失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도의 期末 純運轉資本에 대하여 源泉과 運用項目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財務資源의 가장 중요한 源泉은 사채의 발행,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의 증가 등에 의한 固定負債의 增加(50.1%)이며, 다음으로 營業活動에서 조달된 純運轉資本(32.9%)이다. 대우전자의 경우 사채발행에 의하여 財務資源을 조달하고 있는 비중이 타업체에 비하여 높으며, 1984년도에는 주식발행에 의한 純運轉資本의 調達은 없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營業活動에서 조달된 純運轉資本이 고정부채의 증가보다 많아 他人資本依存度를 줄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財務資源의 가장 중요한 運用은 固定資産의 취득(48.7%)이며, 다음으로는 固定負債의 감소(30.2%)이다. 고정자산의 증가는 금성사의 경

우 건물, 기계 장치의 취득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건설가계정, 미착기계 등의 증가에 의하고 있다. 고정부채의 감소는 고정부채를 유동부채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사채와 장기차입금 등이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전환됨으로써 차기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配當金으로 재무자원이 운용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前期의 純運轉資本에 비하여 當期の 純運轉資本의 변화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4년도의 순운전자본은 1983년도의 순운전자본에 비하여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순운전자본 78,517백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그 감소가 매우 심하며, 또한 순운전자본의 원천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製品製造原價에 대한 百分率分析

損益計算書에 대한 百分率分析에서 상(제)품 매출원가는 75.6~85.3%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각 가전업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 製品製造原價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가전 3사의 當期總製造費用은 材料費, 經費, 勞働費의 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2.7%, 10.0%, 7.3%를 차지하고 있다(〈表 6〉 참조). 즉 材料費가 당기총제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전 3사 모두 공통된 현상이다.

각 가전회사별로 當期總製造費用을 비교하여 볼 때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表 6〉 製品製造原價에 대한 百分率分析

(단위 : 백만원, %)

회 사	금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계			
	1984년		1984년		1984년		1984년			
재 료 비	600,590	79.6	250,689	84.8	136,576	85.3	609,953	85.0	1,461,232	82.7
노 무 비	69,815	9.3	21,648	7.3	11,055	6.9	37,552	5.2	129,015	7.3
경 비	83,923	11.1	23,177	7.8	12,432	7.8	70,219	9.8	177,319	10.0
당기총제조비용	754,328	100.0	295,514	100.0	160,063	100.0	717,724	100.0	1,767,566	100.0
기 초 재 공 품	9,150		12,504		1,481		12,360		34,014	
기 말 재 공 품	(18,798)		(99,096)		(30,299)		(30,406)		(148,300)	
당기제품제조원가	744,680		208,922		131,245		699,678		1,653,280	

금성사의 경우 당기총제조비용 가운데 材料費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업체의 경우에 비하여 가장 낮으며, 經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타업체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전자의 경우 勞務費와 經費가 거의 비슷하게 當期總製造費用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다른 업체에서 經費가 勞務費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만하다.

3. 比率分析

앞에서 百分率分析은 총자산(또는 부채 및 자본합계)이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分析의 限界가 있다. 즉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의 相互關係를 분석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比率分析을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전체 평균비율이나 외국의 비율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국내 家電業界의 現況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財務比率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 ① 成長性比率(growth ratio)
- ② 流動性比率(liquidity ratio)
- ③ 收益性比率(profitability ratio)
- ④ 活動性比率(activity ratio)
- ⑤ 레버리지比率(leverage ratio)
- ⑥ 生産性比率(productivity ratio)

가전 3사에 대하여 위의 여섯 가지 비율을 산출하여 이를 電氣 및 電子機器업종 중 大企業의 경우를 함께 대비하였다. 아울러 미국·일본·대만의 財務比率 가운데 가장 유사한 업종의 자료를 함께 대비함으로써 가전 3사內에서의 비교 뿐만 아니라 外國과의 財務比率 比較도 함께 하였다.

成長性比率을 제외한 기타 비율분석시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순운전자본,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투자와 기타자산, 유동부채, 매입채무, 상(제)품 등은 모두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貸借對照表計定은 1984년도의 기말금액과 1983년도

의 기말금액을 단순평균하여 해당금액으로 보았다. 損益計算書計定은 1984년도의 금액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自己資本에는 當期純利益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自己資本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자기자본} = & \{(\text{기말자본금} + \text{기초자본금}) + (\text{기말} \\ & \text{자본잉여금} + \text{기초자본잉여금}) + (\text{기} \\ & \text{말이익잉여금} + \text{기초이익잉여금}) - \\ & (\text{당기순이익} + \text{전기순이익})\} \div 2 \end{aligned}$$

1) 成長性比率

成長性比率이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도가 前期에 비하여 當期에 성장한 정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成長性比率은 <표 7>과 같으며, 다음의 式에 의하여 구하였다.

$$\begin{aligned} \text{성장성비율} = & \frac{\text{당기기말금액}(\text{당기기증금액})}{\text{전기기말금액}(\text{전기기증금액})} \\ & \times 100 - 100 \end{aligned}$$

대차대조표계정의 성장성비율은 期末金額을 대비하였으며, 손익계산서계정의 성장성비율은 期中金額을 대비하였다.

成長性比率 가운데 중요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전 3사의 總資産增加率은 62.5%로서, 전기 및 전자기업종의 경우보다 높고, 대만의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다. 특히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111.7%로 다른 업체에 비하여 매우 높은 총자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형고정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등의 증가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성사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의 증가율이 전기 및 전자기업종의 경우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총자산증가율이 전기 및 전자기업종보다 높지만 유형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증가율은 전기 및 전자기업종보다 낮게 나타났다.

自己資本增加率은 금성사, 삼성전자에서 1984년도에 增資한 사실이 있어 높지만 대우전자는 대만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賣出額增加率은 65.5~91.2%로서 전기 및 전자기업종(47.8%)이나 대만(20.8%)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증가율

〈表 7〉 成 長 性 比 率

(단위 : %)

항 목	회 사	회 사				합 계	전기 및 전자기	대 만
		금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계			
총 자 산 증 가 율		51.5	111.7	47.3	62.5	39.27	21.69	
유 형 고 정 자 산 증 가 율		62.8	102.1	24.5	55.5	48.25		
유 동 자 산 증 가 율		46.7	108.8	64.8	67.2	35.53		
재 고 자 산 증 가 율		54.0	181.2	31.2	75.1	45.1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63.4	12.3	36.4	43.3	34.48	15.17	
매 출 액 증 가 율		73.1	65.5	91.2	80.2	47.80	20.80	
국 내 매 출		64.1	81.0	83.6	73.1			
수 출		87.2	44.1	97.5	88.4			
경 상 이 익 증 가 율		△61.9	△44.8	36.1	△23.9	0.34		
순 이 익 증 가 율		△60.3	△50.8	18.2	△27.7	△12.46		

註 1) 電氣 및 電子機器(大企業) : 산업용 전기기계 및 장치, 가정용 전기기구, 음향·영상·통신장비 및 전자 부품과 기타 전기기기제조업. 이하 동일.

2) 대만: 1983년 電氣·機器 산업평균비율, 대만은행, 「중화민국대만지구 공업재무상황조사보고」. 이하 동일.

資料 : 한국은행, 企業經營分析, 1985. 이하 동일.

중에서 輸出增加率は 삼성전자, 금성사의 順으로 각각 97.5%, 87.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國內賣出增加率は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으로 각각 83.6%, 81.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經常利益이나 純利益을 살펴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증가를 보이지만, 금성사나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1984년도에는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에서도 當期純利益增加率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어 업종의 어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 流動性比率

流動性比率이란 단기에 만기가 되는 채무를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이

流動性比率의 대표적인 재무비율은 流動比率과 當座比率을 들 수 있다.

먼저 流動比率 $\left(\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right)$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진 3사의 平均 流動比率은 93.5%로서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102.8%), 미국(163.30%), 일본(132.0%), 대만(124.65%)보다 낮다(〈표 8〉 참조). 금성사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지만, 대우전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즉 삼성전자나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유동자산평균액이 총자산평균액의 56.5~64.6%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동부채도 많음으로써 流動比率은 각각 96.7%, 79.47%를 나타내고 있다.

〈表 8〉 流 動 性 比 率

(단위 : %)

항 목	회 사	회 사				합 계	전기 및 전자기기	미 국	일 본	대 만
		금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계					
자 기 자 본 비 율		18.8	10.80	17.9	16.5	23.5	47.64	33.1	37.93	
유 동 비 율		105.1	79.47	96.7	93.5	102.8	163.30	132.0	124.65	
당 좌 비 율		65.5	43.84	71.2	59.9	59.2	82.81	88.9		
매 출 채 권 對 매 입 채 무 비 율		211.6	200.78	230.3	215.2	159.4	219.03	130.4		
매 출 채 권 對 상 (제) 품 비 율		452.7	628.77	811.8	574.3	268.3				
매 입 채 무 對 재 고 자 산 비 율		87.4	59.29	97.0	81.3	64.5	89.54			
재 고 자 산 對 순 운 전 자 본 비 율		328.4	△190.55	△948.5	△1,582.0	1,386.3	40.88			

註 1) 미국: 1983년 전기·기계설비 산업평균비율,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Quarterly Financial Report for Manufacturing, Mining and Trade Corporations". 이하 동일.

2) 일본: 1983년 전기기기 산업평균비율, 大藏省, 「財務金融統計月報」. 이하 동일.

當座比率($\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은 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유동성비율로서 가전 3사의 당좌비율은 외국의 경우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전자의 當座比率은 43.84%로 가장 낮으며, 이는 타업체에 비하여 在庫資産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에서 연유한다.

이밖에 自己資本比率($\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을 보면 가전 3사의 평균비율이 16.5%로서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23.5%보다 낮으며, 일본, 대만의 33.1~37.9%, 미국의 47.6%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가전업체에서는 총자본의 대부분을 他人資本에 의존함으로써 財務레버리지효과(financial leverage effect)가 높음을 알 수 있다.

賣出債權 對 買入債務比率과 賣出債權 對 商(製)品比率은 가전 3사 평균 215.2%, 574.3%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이나 외국의 경우보다 높으며, 買入債務 對 在庫資産比率은 대우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서 산업평균보다 높다. 이는 상품매출시 현금매출보다는 외상매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외상매출에 따른 비용, 즉 貸損償却이나 現金回收費用(集金費)이 외국의 경우보다 높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純運轉資本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우전자, 삼성전자의 純運轉資本이 △43,122.5

백만원, △16,765.5백만원으로 그 절대액이 마이너스임으로써 가전 3사의 평균 재고자산 對 순운전자본비율은 △1,582.0%를 나타내고 있다.

3) 收益性比率

收益性比率이란 수익이나 투자에 대한 기업 경영성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먼저, 總資本經常利益率은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의 順으로 높으며, 각각 7.89%, 2.65%, 1.17%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表 9〉참조). 이들 가전 3사의 平均 總資本經常利益率은 4.07%로서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4.57%나 일본의 7.5%, 대만의 8.2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전 3사의 차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總資本經常利益率을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총자본경상이익율} &= \frac{\text{경상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 \frac{\text{경상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 \times 100 \\ &= \frac{\text{경상이익}}{\text{자기자본}} \times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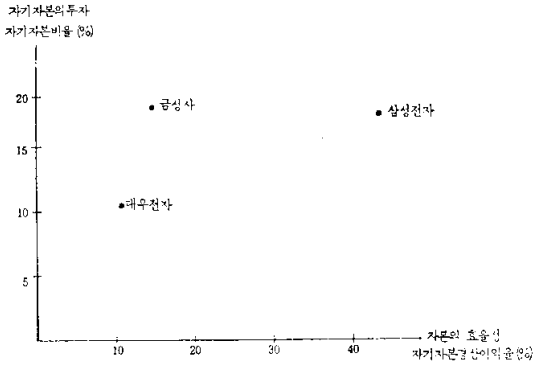
즉, 총자본경상이익율은 賣出額經常利益率과 總資本回轉率의 곱과 일치하며, 또한 自己資本經常利益率과 自己資本比率의 곱과도 일치한다.

〈圖 1〉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액경상이익율과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이 모두 타업체에 비하여 가장 높음으로써 資本의 投資와 資本의 效率性이 좋다. 반면에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총자본회전율과 자기자본비

〈表 9〉 收益性比率

(단위 : %)

항 목	회 사				합 계	전 기 및 전 자 기 기	미 국	일 본	대 만
	금성사	대우전자	삼성전자						
총자본경상이익율	2.65	1.17	7.89	4.07	4.57		7.5	8.29	
총자본순이익율	1.83	0.62	5.16	2.66	2.65	4.86		7.36	
총자본영업이익율	11.51	4.66	17.74	11.90		6.42	8.1		
자기자본경상이익율	14.12	10.87	44.11	24.71	19.17		22.7	21.32	
자기자본순이익율	9.74	5.75	28.84	16.17	11.12			18.92	
자본금경상이익율	23.19	10.63	76.86	37.17	34.45				
자본금순이익율	16.00	5.62	50.25	24.31	19.99				
매출액경상이익율	1.18	1.50	2.84	1.98	2.96		5.3	6.6	
매출액순이익율	0.81	0.79	1.86	1.29	1.72	3.85		5.89	
매출액영업이익율	5.13	5.95	6.39	5.79	7.21	5.08	5.7	7.32	
매출원가對매출액비율	85.27	75.62	83.19	83.38	83.94				



〈圖 1〉 自己資本의 投資와 效率性

을, 자기자본경상이익율이 가전 3사 가운데 가장 낮음으로써 총자본경상이익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자본경상이익율이 매우 낮음으로써 자본의 효율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總資本利益率, 自己資本利益率, 資本金利益率, 賣出額利益率 등 모든 비율을 비교하여 볼 때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의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資本金經常利益率은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가 각각 76.86%, 23.19%, 10.63%로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지 賣出原價 對 賣出額比率만 대우전자가 가장 낮음으로써 賣出額營業利益率은 삼성전자, 대우전자, 금성사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4) 活動性比率

活動性比率은 기업의 자산·재고 등의 物理的인 利用度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구체적인 活動性比率은 〈表 10〉과 같다.

먼저 總資本回轉率 $\left(\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right)$ 을 살펴보면 삼

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의 順으로 높으며, 각각 2.78회, 2.24회, 0.78회로 나타났다. 이들 가전 3사의 平均 總資本回轉率은 2.05회로 전기 및 전자기업종의 1.55회, 미국, 일본, 대만의 1.25~1.42회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은 自己資本回轉率, 資本金回轉率, 固定資産回轉率, 有形固定資産回轉率을 살펴 보아도 동일하다. 특히 유형고정자산의 활동성은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가 각각 9.10회, 6.60회, 2.90회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전 3사의 平均 賣出債權回轉率 $\left(\frac{\text{매출액}}{\text{매출채권}}\right)$ 만이 전기 및 전자기업종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외상매출이 상당히 많은 데 연유한다.

5) 레버리지比率

레버리지比率은 기업의 타인자본의존도와 타인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구체적인 레버리지比率은 〈表 11〉과 같다.

먼저 固定比率 $\left(\frac{\text{고정자산} + \text{투자} + \text{기타자산}}{\text{자기자본}}\right)$ 은 대우전자, 삼성전자, 금성사의 順으로 높으며 각각 331.06%, 254.51%, 224.51%로 나타났다. 이들 가전 3사의 平均 固定比率은 외국의 경우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固定長期適合率 $\left(\frac{\text{고정자산} + \text{투자} + \text{기타자산}}{\text{자기자본} + \text{고정부채}}\right)$ 을 살펴보아도 동일하다.

이들 비율, 즉 고정자산에의 投資와 그 자산의 活用度를 나타내던 〈圖 2〉과 같다.

〈圖 2〉에서 보듯이 대우전자는 고정자산에의 투자는 많으나 아직 그 유형고정자산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表 10〉 活動性比率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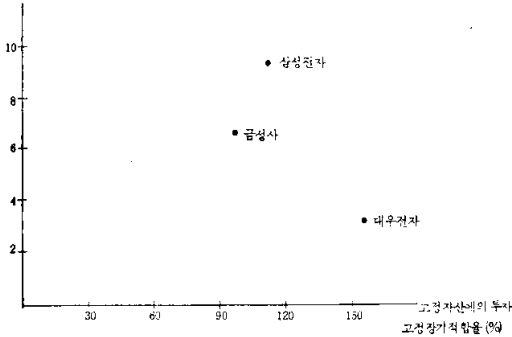
항 목	회 사	금 성 사	대우전자	삼성전자	합 계	전기 및 전자기업	미 국	일 본	대 만
총 자본 회 전 율		2.24	0.78	2.78	2.05	1.55	1.26	1.42	1.25
자기 자본 회 전 율		11.95	7.25	15.51	12.49	6.49			3.21
자 본 금 회 전 율		19.63	7.09	27.03	18.79	11.66			
순운전자본회전율		38.20	△6.58	△178.84	△174.81	46.21			
고정 자산 회 전 율		5.32	2.19	6.10	4.93	3.65			
유형고정자산회전율		6.60	2.90	9.10	6.62	4.55	4.75	7.71	
재 고 자 산 회 전 율		11.63	3.45	18.85	11.05	7.66			
매 출 채 권 회 전 율		6.29	2.90	8.44	6.32	7.33			4.48

〈表 11〉 레 버 리 지 비 율

(단위 : %)

항 목	회 사	금 성 사	대우전자	삼성전자	합 계	전기 및 전자기	미 국	일 본	대 만
고 정 비 율		224.51	331.06	254.51	253.40	183.4	89.62	96.8	70.60
고 정 장 기 적 합 율		94.07	156.12	116.10	111.63	93.3	65.78		63.61
부 채 비 율		432.63	825.50	458.93	507.86	326.0	109.90		163.62
유 동 부 채 비 율		293.98	713.44	339.72	380.85	229.3			
고 정 부 채 비 율		138.65	112.06	119.21	127.01	96.6			

자산의 활용
유형 고정자산의 비율 (%)



〈圖 2〉 固定資産의 投資와 活用

한편, 負債比率 $\left(\frac{\text{유동부채} + \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right)$ 과 流動負債比率 $\left(\frac{\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right)$ 은 대우전자, 삼성전자, 금성사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전 3사의 平均 負債比率이나 平均 流動負債比率은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경우나 외국의 경우보다 매우 높다. 즉, 他人資本에의 依存도가 너무 높은 편이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우전자의 流動負債比率은 713.44%로 가장 높은 반면에 固定負債比率은 타업체에 비하여 가장 낮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무엇

보다도 流動性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6) 生産性比率

生産性比率이란 人的·物的資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는 비율로서, 본 연구에서는 從業員 1人當 生産性を 분석하였다.

가전 3사의 人員 및 1人當 平均給與額은 〈表 12〉와 같다.

가전업체의 인원은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으로 많으며, 가전 3사의 총종업원수는 약 4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1人當 平均給與額은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액의 월평균 급여액으로 이 역시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이며, 각각 359천원, 304천원, 202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전 3사의 附加價値는 〈表 1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表 13〉에서 法人稅差減前純利益은 經常利益에 特別損益을 가감한 금액이다. 人件費는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원에 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구체적으로 노무비,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의 합계액이다. 金融費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 사채이자, 사채발행

〈表 12〉 人員 및 平均給與額

항 목	회 사	금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인 원				
임 사 무 직 직 원		36	13	43
기 술 직 직 원		3,273	2,823	6,532
기 능 공		3,055	1,738	574
		13,131	6,248	8,571
		19,495	10,822	15,720
1인당평균급여액 (단위: 천원)		359	202	304
		총업원수 19,459	총업원수 10,809	총업원수 15,677

〈表 13〉 附加價値의 構成

(단위 : 백만원, %)

회 사	금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계	전기 및 전자기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4,889	7.38	3,816	6.50	33,340	18.57	52,045	11.83	12.7
인 건 비	94,444	46.79	23,574	40.17	76,579	42.66	194,597	44.22	52.8
금 용 비 용	48,926	24.24	15,606	26.59	26,885	14.98	91,417	26.77	17.2
일 차 료	6,666	3.30	2,743	4.67	3,896	2.17	13,305	3.02	2.2
조 세 공 과	12,169	6.03	3,820	6.51	8,891	4.95	24,880	5.65	0.9
감 가 상 각 비	24,769	12.27	9,124	15.55	29,936	16.67	63,829	14.50	14.2
합	201,863	100.00	58,683	100.00	179,527	100.00	440,073	100.00	100.00

차금상각액의 합계액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를 차감한 순액을 의미한다. 賃借料는 지급임차료로, 減價償却費는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이연자산상각액, 영업권상각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租稅公課에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로 구성되어 법인세는 제외되었다.

附加價値는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이며, 각각 201,863백만원, 179,527백만원, 58,683백만원으로 이들 가전 3사의 총부가가치는 440,073백만원이다. 이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法人稅差減前純利益은 삼성전자가 단연 높다. 人件費는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이며, 이는 〈表 12〉에서 1인당 平均給與額에서의 順과 일치한다.

金融費用은 대우전자가 26.59%, 삼성전자가 14.98%로 양자간에 11.61%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減價償却費는 금성사가 12.27%로 타업체나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附加價値에 대하여 從業員 1人當 生産性比率을 구하면 〈表 14〉와 같다.

生産性比率 가운데 從業員 1人當 人件費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4,885천원으로 금성사의 4,853천원보다 근소하게 많으며, 대우전자의 2,181천원에 비하여서는 2.2배만큼 높다. 보다 깊이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從業員 1人當 人件費를 표시할 수 있다.

종업원 1인당 인건비

$$= \frac{\text{인 건 비}}{\text{종업원수}}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times \frac{\text{인 건 비}}{\text{부가가치}}$$

즉,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勞動生産性和 勞動所得分配率과의 곱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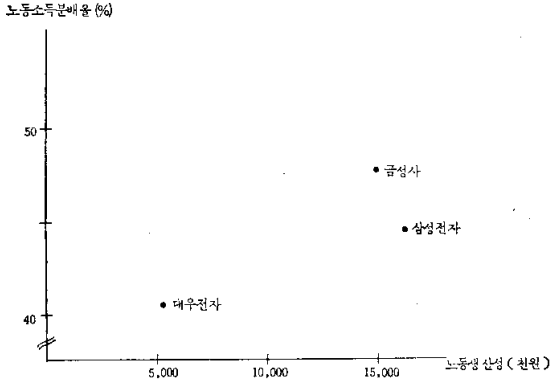
가전 3사의 勞動生産性和 勞動所得分配率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3〉과 같다. 〈圖 3〉에서 보듯이 勞動所得分配率은 금성사가 가장 높으며, 勞動生産性은 삼성전자가 가장 높다. 대우전자는 勞動所得分配率이나 勞動生産性이 모두 낮음으로써 從業員 1人當 人件費도 타업체에 비하여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從業員 1人當 賣出額이나 從業員 1人當 經常利益, 從業員 1人當 純利益은 모두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 14〉 生産性比率

(단위 : 천원, 만원)

회 사	금 성 사	대 우 전 자	삼 성 전 자	합	계	전기 및 전자기기	일 본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10,151	5,284	10,928	9,271	7,058.5	538	
종업원 1인당 매출액	66,584	26,233	86,218	63,790	35,104.8		
종업원 1인당 경상이익	787	393	2,451	1,262	1,037.6		
종업원 1인당 순이익	542	208	1,603	826	602.1		
종업원 1인당 인건비	4,853	2,181	4,885	4,235	3,725.6		
부가가치율 (%)	15.2	20.1	12.7	14.5	20.1	24.1	



〈圖 3〉 勞動生産性と 勞動所得分配率

附加價値率($\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times 100$)은 대우전자가 20.1%로 일본의 24.1%보다는 낮으나 금성사의 15.2%, 삼성전자의 12.7%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대우전자의 附加價値率이 타업체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附加價値率을 변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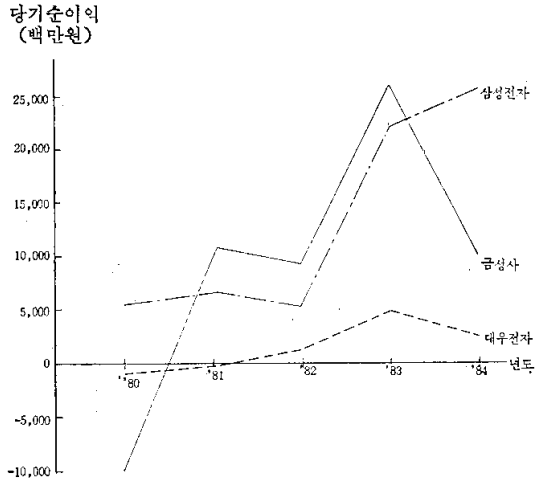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times 100 \\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times \frac{\text{종업원수}}{\text{매출액}} \times 100 \\ &= \frac{\text{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text{종업원 1인당 매출액}} \times 100 \end{aligned}$$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매출액이 타업체에 비하여 모두 낮다. 그러나 대우전자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매출액은 가전 3사의 종업원 1인당 총부가가치와 총매출액의 57.0%, 41.1%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이들의 상대적 비율은 가전 3사의 평균보다 높아졌다. 즉, 대우전자의 높은 附加價値率은 낮은 從業員 1人當 賣出額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4. 配當에 관한 事項

가전 3사의 최근 5사업년도의 配當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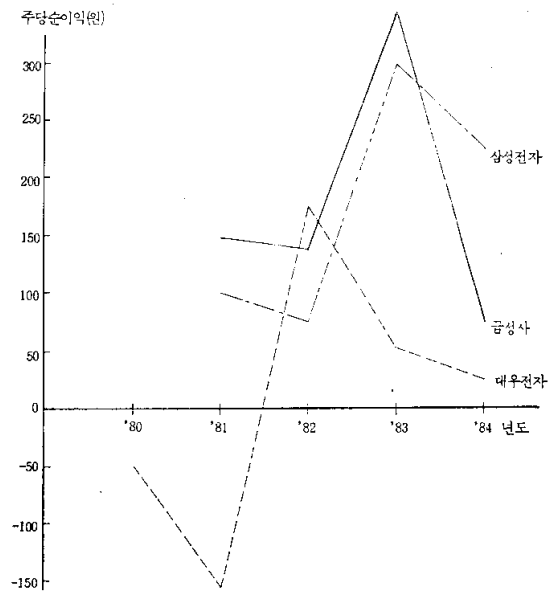
먼저, 최근 5사업년도 동안 가전 3사의 當期純利益의 추세를 나타내면 〈圖 4〉와 같다. 대체적으로 1983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4년에는 가전 3사간에 변화상태가 매우 다를 수 있다. 1984년도의 當期純利益의 絕對額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의



〈圖 4〉 家電 3社의 當期純利益

順으로서 1983년도의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順과 대조를 이룬다. 즉, 1981~1983년 사이에는 금성사의 當期純利益이 가장 높았으나 1984년에는 그 선두 위치를 삼성전자에게 넘겨 주었다. 〈圖 4〉에서 금성사의 경우 1984년에 급격한 當期純利益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점과 삼성전자의 꾸준한 當期純利益의 증가추세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株當純資產을 대비하여 보더라도 동일하다.

최근 5사업년도 동안 가전 3사의 株當純利益을 비교하면 〈圖 5〉와 같다. 대체로 當期純利



〈圖 5〉 家電 3社의 株當純利益

〈表 15〉 최근 5事業年度の 配當에 관한 事項

회 사	금 성 사					대 우 전 자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항 목										
당 기 순 이 익 (백만원)	△9,132	10,341	9,658	26,610	10,556	△1,129	△998	1,704	4,562	2,246
주 당 순 이 익(원)		148	138	346	76	△59	△156	181	57	28
주 당 순 이 익 율(%)		29.6	27.6	69.3	15.2	△12	△31	36	11	5.6
배 당 액(案) (백만원)				3,840	6,944					2,000
주 당 현금 배당(원)		75	50	50	50				2.2	25
주 당 현금 배당 율(%)		15	10	10	10					5
배 당 성 향(%)		50.68	36.24	14.4	65.79					89.29
배 당 율(%)					8.68					5.00
사 내 보 유 율(%)					42.3					15.4
주 당 순 자 산(원)	599	1,020	1,076	1,368	1,045	232	417	622	517	545

회 사	삼 성 전 자					전 기 및 전 자 기 기	미 국	일 본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항 목								
당 기 순 이 익 (백만원)	5,516	6,969	5,148	21,261	25,126			
주 당 순 이 익(원)		99.56	73.53	291.85	228.42			
주 당 순 이 익 율(%)		19.9	14.7	53.4	45.7			
배 당 액(案) (백만원)				3,642	5,239			
주 당 현금 배당(원)		75	50	50	55			
주 당 현금 배당 율(%)		15	10	10	11			
배 당 성 향(%)		75.33	67.99	17.13	20.85	23.33	46.97	25.2
배 당 율(%)					9.53	5.70		15.5
사 내 보 유 율(%)					97.5	83.84	53.00	72.7
주 당 순 자 산(원)		784	986	1,055	1,142			

益을 비교한 (圖 4)과 유사하나, 단지 삼성전자의 경우 1984년도에 當期純利益의 絶對額은 증가하였지만, 株當純利益은 감소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가진 3사 사이의 當期純利益이나 株當純利益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株當現金配當率은 최근 4사업년도 동안에 10~15%의 비율로 안정된 추세이다(〈표 15〉 참조). 단지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1984년에 5%의 株當現金配當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配當安定性은 다음의 配當性向 $\left(\frac{\text{배 당 금}}{\text{당기순이익}} \times 100\right)$ 이나 社內留保

率 $\left(\frac{\text{사내유보액}}{\text{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이입액}} \times 100\right)$ 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社內留保額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으로 구성되었다. 대우전자의 配當性向은 89.29%로서 삼성전자의 20.85%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우전자의 社內留保率은 15.4%로서 삼성전자의 97.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대우전자는 當期純利益의 대부분을 배당하였고, 따라서 기업내부에 유보되는 이익은 거의

없다. 대우전자의 配當率($\frac{\text{배당금}}{\text{자본금}} \times 100$)은 5.00%이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當期純利益의 많은 부분을 사내유보하고 있으며 配當性向이 타업체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配當率은 9.53%로 가장 높다.

Ⅲ. 結 論

그 어느 산업보다도 資本集約度가 높고, 技術水準의 향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電子·電氣産業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 經濟를 主導할 業種이다. 이 業種 중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家電

3社의 財務諸表分析을 통하여 成長性, 流動性, 收益性, 레버리지, 生産性, 配當 등을 比較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중요한 財務比率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分析하였다.

앞으로도 電子·電氣業界는 음성다중방송의 실시, 올림픽상품의 개발, 情報化社會의 진전, 國家基幹 電算網의 확충, VTR의 輸出개시 등으로 生産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經濟成長을 주도하리라 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러한 財務諸表分析을 통하여 家電業體의 現況과 問題點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